



◇디즈니 만화영화 '인어공주'의 화면. 자막에 마녀주인이 수리수리 마수리로 번역돼 있다.

어린이 프로에 판치는 '불교왜곡'

만화영화 '수리 수리...' 천수경 진언이 마술 주문 단감 '심청전' 코너서 스님 대신 무속 도사로 대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수리수리 마수리 라고 또렷이 나타난 자막을 보자 어린이들에게 이 좋은 불교 진언이 왜곡돼 나쁜 사람들이 쓰는 주문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불자로서 걱정이스러웠다”고 이씨는 말했다.

을 보았다는 안순진씨(정각여성대학 학장)는 “불교적인 내용을 일부러 삭제하려는 의의가 있는 듯 했다”고 분노했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 방송·광고 모니터 요원인 배연파씨는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가 만화영화에서 나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기

불교를 잘못 인식시킬 수도 있는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어린이들은 순수하고 단순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그대로 인식해 버린다는 특성상 사소한 점이라도 이러한 왜곡은 어린이들의 잠재의식에 불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이나 비디오 등 영상매체의 막강한 위력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데 불교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뜻있는 불자들의 지적이다.

“어린 시청자들에게 그릇된 불교인식 심어줄 우려”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또 하나의 만화영화인 알라딘의 모습에서 마법사가 알라딘을 해치려고 주문을 외우는 장면에서 '수리수리 마수리'가 그대로 자막에 나온다. 이같은 불교왜곡 외에도 방송에

전 쓰이는 주문의 전용물처럼 어린이들에게 고정 인식되어버린다면 큰일”이라며 “어릴 적에 본 것은 어른이 돼서도 잘 잊지 않는다고 볼 때 이러한 왜곡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이은지 기자

스님·전문가등 진행받아 불교방송 특별 프로그램



◇덕신스님 ◇김형근씨

불교방송은 1일부터 개편된 특별 프로그램에 전문가와 스님등 새로운 진행자를 투입했다.

먼저 평범한 사람들의 숨은 신앙이야기로 뛰어드는 주간프로그램 '우리도 부처님같이'는 불지사 김형근씨가 진행하게 되어 일요일에 '맑고 향기롭게'는 진정스님(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장)이 진행한다.

또 '전정봉의 열린 경제'는 경제학 박사인 전정봉교수(연세대)가, 매일밤 12시부터 방송되는 '살며 생각하며'는 덕신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이 각각 맡았다. 이와 더불어 한국 불교음악의 총체적인 모습을 담아낼 기획프로그램 '불교음악순례'는 김학주PD가 직접 진행하게 된다.

불교TV 영상물 美 수출길 트어

ATW사와 프로그램 계약 5월부터 공급

불교텔레비전의 프로그램 해외 진출 서막이 미국에서 이뤄졌다. 지난 26일 불교TV(대표이사 태웅)는 미국 현지내 국내영상물 공급업체인 ATW사(대표 노승진)와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ATW사와의 계약체결로 인해 불교TV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미국 본토는 물론 알래스카와 하와이지역에 공급된다. 프로그램 공급 개시는 계약 발효

시점인 오는 5월 1일부터이며 계약 기간은 2년간인 98년 4월 30일까지로 계약해지의 의사가 없는 한 쌍방향 1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현재 ATW사는 '퀴즈 이퀴즈', '김병조의 스타쇼', '경진공부'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불교TV와 함께 ATW사와 계약을 체결한 국내 프로그램 공급업체는 동아TV, m-met 등 총 6개 업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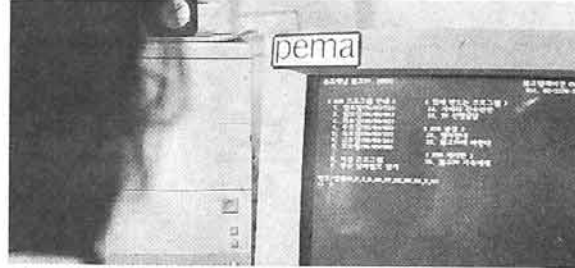
불교TV 김병조 이야기 쇼

'젊은불자 잡기' PC방 나들이

다양한 시청자 욕구 수렴위해 하이텔에 개설

지난해 6월 하이텔에 불교TV PC방을 개설한 불교TV가 오는 중순경에 보다 적극적인 PC통신 활용을 도모키 위해 인기 프로그램인 '김병조의 이야기쇼' 코너를 PC방에 올린다. 불교TV는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불교TV를 슬로건으로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코너를 PC방에 마련, 그동안 프로그램 'TV신행상담'과 '자비의 천수천안'에 대한 불자들의 의견과 시청소감등 방송참여를 유도해 왔다. 이밖에도 불교TV PC방은 [bm 광장]코너를 마련, 각종 행사 안내로 불자들에게 정보 제공도 하고 있고, [bm 게시판]에서는 불교TV가족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담아

왔으며, [bm 프로그램 안내] 코너에서 주요 프로그램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TV PC방은 그동안 시청자 방송참여보다는 홍보쪽에 치중했던 것이 사실이다. 불교TV PC방에 마련된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TV신행상담 경우 "주 시청자가 컴퓨터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노년층이어서 PC방 이용이 활발하지 못해 프로그램 홍보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김민석PD의 말이다. 따라서 이번 김병조의 이야기쇼 코너 신설을 계기로 PC통신을 이용하는 젊은 불자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 시킨다는 방안이다.



◇하이텔에 개설된 불교TV PC방. 함께하는 불교TV에 많은 불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담당 나성근 PD는 "불자들이 만나고 싶은 스님과 스타, 소재, 주제 선정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방송 제작에 반영하고 보다 생생한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PC통신을 통한 불자들의 불교TV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요구는 불교TV의 미래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미 공중파 방송

에서는 하이텔이나 천리안 같은 PC통신에 방송사 및 프로그램 관련 메뉴를 만들고 방송제작과 시청자 방송 참여를 활발히 해오고 있다. 따라서 불교TV PC방 개설은 멀티미디어 시대에 시청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방송의 제작 영역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불교TV PC방은 하이텔에서 GO BTN으로 들어가면 된다. <은>



◇광주 구동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운 5천여 관중들은 광주불교방송 개국 1주년을 노래와 함성으로 축하했다.

광주BBS 개국 1돌 기념 가요축제 성황

불교광주방송(사장 이상진)은 지난 26일 광주 구동실내체육관에서 5천여관중이 참가한 가운데 'BBS 가요축제'를 성황리에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남진, 방실이, 편승연, 김명배, 현숙등이 정겨운 트로트무대를 꾸몄으며, 신세대

가수 녹백재, 노이즈, 어스 등이 출연해 불교광주방송 1주년의 기쁨을 한껏 들켰다. 한편 이날 가요축제에는 현고스님(송광사 주지)이 참석, 불교광주방송의 1주년을 격려했다.

1백만 장애인들의 진정한 눈과 귀가 되기 위해 지난해 12월 20일 첫 전파를 띄운 '사랑의 소리방송'이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자원봉사자를 기다린다. KBS라디오 표준FM 97.3MHz의 이편을 이용해 전파를 내보내는 SCA방식으로 방송되고 있는 사랑의 소리방송은 하루 12시간 장애인과 노년층을 위한 정보와 교양, 오락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현재 사랑의 소리방송에는 장애인인문협회 회장이면서 활발한 불교활동을 하고 있는 방귀희씨와 불교TV 구성작가 이계원씨등 순수자

원봉사자들이 개국초부터 방송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사랑의 소리방송 편성제작 박재권부장은 "사랑의 소리방송은 종교를 초월한 방송이다. 현재 3백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고, 방송제작의 99%가 순수자원봉사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철저한 봉사 정신으로 함께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이면 어떤 형태의 자원봉사로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장애인복지회 사랑의 소리방송 청취 라디오를 신

청, 방송을 듣고 있다는 이연주씨(원신회 정자부 보조강사)는 "시각 장애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소설이나 신문, 잡지의 소식을 사랑의 소리방송을 통해 접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칭찬소감을 밝히고 있다.

장애편과 일반인의 사이를 좁혀 가까이 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연결시켜주는 교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사랑의 소리방송에 불교 장애인 단체와 관심있는 불자들이 참여가 필요한 때다. (사랑의 소리방송 02-705-8677)

장애인 등불돼줄 자비손길은...

'사랑의 소리방송' 불자 자원봉사 참여 기다려

부산불교TV 문화센터 개원

부산불교 최초의 종합불교센터인 부산불교TV 문화센터가 지난 29일 개원식을 봉행했다. 부산불교TV(사장 우관수) 사옥 5층 90평을 개방, 앞으로 부산 지역 신행단체들의 법회도량은 물론이며 예술작품의 전시, 불교교양강좌 개설, 결혼식장 등 다목적 문화광장으로 이용될 전망이다. 이날 개원식에는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등 각종단 대표스님, 부산불교신도회 회장 류진수씨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방송 하이라이프

'열반경'에 담긴 의미소개

TV법회(3월 31일 오전10시20분)=부처님 열반절을 맞아 대각사 주지 도문스님이 불자들에게 열반경에 얽힌 법문을 설한다.

문화재 보호 현주소 진단

김병조의 이야기쇼(2일 오후 1시5분)=홍도사 박물관장인 법사스님이 출연, 성보의 중요성, 문화재 보호와 보존실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주영운씨 보현행원의 삶

나의 삶 나의 불교(5일 오전 11시)=보현행원의 인력으로 법등을 밝힌 보현문화재단 이사장인 주영운씨의 삶과 불교관을 들여본다.

4·11총선과 불심주제 토론

TV 대중공론(6일 오후12시35분)=4.11총선을 앞두고 '정책인기, 불심인기'를 주제로 정천교수(인천대), 김병준교수(국민대)등이 참석 열린 토론을 벌인다.

법안정사·대각사 한판승부

퀴즈특급 이퀴즈(3일 오전11시10분)=불교의 교리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본다. 법안정사와 대각사 불자들이 나와 열린 퀴즈 한마당을 벌인다.

복음 가득, 반향 가득...

고객은 무조건 옳습니다. 특히 책방 여시아문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가장 손쉽게 다다갈 수 있을까?' 반드시 독자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판단되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책이라도 꼭 구비해 놓는 것이 저희 책방 여시아문의 고객 우대 실천 덕목 제 첫번째 사항입니다.

모든 진열서적이, 고객의 손끝에 쉽게 닿도록, 매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더욱 편리한 매장 이용을 위하여 전 매장을 고객 중심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불서와 첫 인연을 맺게 될 분들로부터 전문서적을 찾으시는 독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매장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지만 하던 구하고자 하는 서적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매장의 구비 서적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방법 또한 '불법의 세계로 처음 들어오신 분을 위한 책' 등의 입문서와 함께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책', '삶의 길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책' 등, 저희 책방 여시아문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목적에 따라 제대로 된 도서를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독서 환경 조성, 이것이 책방 여시아문의 또다른 지향점입니다.

통신판매 독도에서 LA까지, 독자가 원하면 어디든 갑니다

책방 여시아문이 우편 발송료를 전액 부담하는 통신 판매망이 산사에서 도심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익금보다 발송료가 더 들어도 한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 통신 판매, 책방 여시아문만의 서비스 정신입니다.

책방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 / 팩스: 737-0696

